

외국간행물 수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허가제서 등록제로 개선...수입 추천기간도 종래보다 단축하는 등 절차 간소화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업이 '외국도서공급 계약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부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존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24일에는 민자당과의 당정협의를 이 제도개선책을 제출했다.

문화체육부의 외국간행물 수입제도 변경은 첫째, 오는 '97년 1월 1일로 예정된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 전면개방에 앞서 향후 2,3년간 국내 외서수입업계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둔 것"이며, 또 국민의 다양한 국제정보 충족육구의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현행법상 도서수입은 등록제로 정기간행물의 경우엔 허가제로 이원화돼온 제도를 등록제로 일원화 한다는 것과, ▲15일이 소요되는 수입추천기간을 7~10일로 단축하고, ▲수입추천업무를 출판자료과가 전담하며, ▲동일사안의 수입추천을 1회 추천으로 간소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세수입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불온간행물의 수입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재량권을 정부가 갖는 허가제를 시행해 왔으나, 제반여건의 변화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을 결정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특히, 113개 등록업체 가운데 허가를 받은 19개 사에만 독점수입권이 주어져 특정업체만을 과보호한다는 업계의 비난과 독점에 의해 구독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지적이 작용한 것

영세수입업체 난립과 무분별한 불온·음란간행물의 반입을 막기 위해 허가제로 규제해온 외국정기간행물 수입없이 등록제로 바뀐다.

이 제도개선의 골자는, 정기간행물도 도서수입과 똑같이 등록제로 하며, 수입추천기간도 7~10일로 단축하고, 동일사안은 문화체육부의 1회추천으로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으로 보인다.

또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이제까지 도서출판과와 출판자료과가 수입추천의 접수·검토 등 업무를 분담 처리해 "기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인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는 문화체육부가 추천하고 다시 외국환은행장이 상공부에 수입승인(IL) 추천을 의뢰하던 2중추천을 1회추천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번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의 제도개선안은 오는 9월의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며, 수입추천기간과 추천절차 간소화 방안은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곧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입추천·심의 및 납본제도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된다.

문화체육부 도서출판과 이승규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해 "사치성·과소비조장 간행물의 수입물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실제 수입물량이 현행 허가 물량의 70% 수준이므로 당



이번 조치로 인해 보다 빠른 해외정보 수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형서점의 외국잡지코너.

분간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등록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음란·저속물의 반입 우려는 심의제도인 추천제에 의해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가제에서 과당경쟁 방지역할을 해온 1社1種制는 사실상 무너질 것이 확실시 된다. 그리고 이번 제도개선에 의해 등록제로 변경될 경우, 19개 허가업체가 지난 92년 수입했던 총 1천7백종(1천7백만부) 2천4백만부 상당의 수입물량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신청건수(8천6백3건) 역시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그동안 '검열'의 이유가 됐던 추천심의 과정이 시간낭비였다는 점에서 보다 빠른 해외정보 수입이 가능해진 데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번 제도개선을 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외설이 심의의 이유라면 그것은 자율에 맡기고, 처벌규

정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해야 더욱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품목과 수량에 대한 정부관여에 대해서도 "철저히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한국출판무역주식회사 여승구 사장은 "허가제로 인한 1사1종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하고, 그 이유를 "한정된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외국 정기간행물 시장의 특성상, 특정품목에 대해 여러 회사가 덤핑판매 등 과당경쟁을 벌이면 결국 도산업체가 속출해 선불로 지불한 구독대금을 떼이는 독자피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제도개선에 앞서 공청회 등 업계의견 수렴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같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73년 허가제 시행 이후 20년만에 이뤄진 이번 조치는, 민원인의 불편과 시장개방을 고려한 주목할 만한 제도개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최태원 기자

'93 第1期 東京出版 研修團 日程表		'93 第1期 東京出版研修 參加案内	美 洲 旅 行 社
5. 27(木)	서울출발 동경도착 하꼬네이동 관광후 午後 유명인사 講演	'93 책의 해를 맞이하여 출판 先進國 日本 현지에서, 國內外 출판관련 유명 강사진을 모시고 제1기 동경출판연수단을 모집합니다. 주제: "開放化 時代의 出版界 進路" 기간: '93. 5. 27~30(3박 4일) 주관: (주) 미 주 여 행 사 출판여행사업부(☎ 757-9991) 연수경비: ₩ 790,000 신청마감: '93. 5. 14(금) 17:00	접수 및 문의 : (주) 미 주 여 행 사 출판여행사업부 (02)757-9991 후 원 : 한국출판협동조합 (주)서울출판유통 大日本印刷所 東京出版販賣(株) 협 찬 : 대 한 항 공 (株)日本旅行
5. 28(金)	편집반—大日本印刷所 방문 및 講演 유통반—東京出版販賣 방문 및 講演 ※ 일정종료후 자유시간		
5. 30(土)	동경시내 書店街 개별견학		
5. 31(日)	동경출발 서울도착		